

목 장 예 배

2025 년 6 월 후반기

제목 / 겸손의 옷을 입으라

본문 / 빌립보서 2 장 1-11 절 / 찬송 413 장(내 평생에 가는 길)

1.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2.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마음을 품어
3.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4. 각각 자기 일을 돌볼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5.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9.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전장치에 조정 받지 않고 내가 한번 운전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우리 스스로 통제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능력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배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분의 능력으로 채워주십니다. '겸손'과 '복종', '순종'은

항상 나란히 함께 가는 것입니다. 겸손은 전인격적인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놓아두신 그 권위 아래 복종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완전히 탈선하고
실패한 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너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겠다."가 아니라
"나는 여전히 너와함께 했었고 너로 인해 놀라운 일들을 펼칠 것이다.
나는 여전히 너와함께 하길 원한다." 주님은 늘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자들입니다. 세상에 살며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합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용서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잘못으로 인해
충분히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의 죄책감이 늘 나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여러분을 포기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첫째, 우리가()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
하니라."(눅 22:61-62) 때로는 우리도 베드로처럼 실패합니다. 실패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실패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내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잠 28:13)

실패할 때와 실수할 때는, 오히려 하나님의 소명이 옳게 보이는 중요한 때
입니다. 불필요한 후회나 죄책감에 사로잡혀서는 안됩니다. 단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가장 용서하기 힘든 사람은 자기 자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고 하는데 본인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죄책감에서 벗어나십시오. 본인이 아닌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의 능력 앞에 손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능력 앞에 손을 드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가장 약한 부분을 감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약한 부분을 드러내 보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함을 알 때, 그 때가 곧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입니다. 겸손하게 그분을 닮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 11:28-29) 스스로 통제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자신을 낮추시고 종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사랑 앞에서, 우리도 서로를 겸손히 섬기며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 말씀과 함께하는 나눔

1. 오늘 하루, 그리스도의 사랑과 겸손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2. 실패를 통해 배움이 있었던 일을 나누어 봅시다.
3. 이번 한주, 주님을 닮아가는 길을 어떻게 걸어가시겠습니까?

(정답: 실패, 회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원제 : 나)

송명희 사, 최덕신 곡

A D Bm E⁷ Amaj⁷

나 가진재물 없으나 - 나 - 남이가진지식 없으나 -

F#m F#/A# Bm G#m G# E

나 남에게있는건강있지 앎으나 - 나 남이 없는것 있 - 으 니

A D E Amaj⁷

나-남이못본것을 보았고 - 나 - 남이 - 듣지못한음-성 들었고 -

A⁷ F#⁷ Bm D B⁷/D# E

나남이받지못-한사랑 받았고 - 나 남이모르는-것-께 달았네 -

A E/G# F#m D B⁷/D# E

공 평하신 - 하 하나님이 - 나남이가진것나 없지만 -

A E/G# F#m D E A

공 평하신 - 하 하나님이 - 나 남이없는것 갖게 하셨네